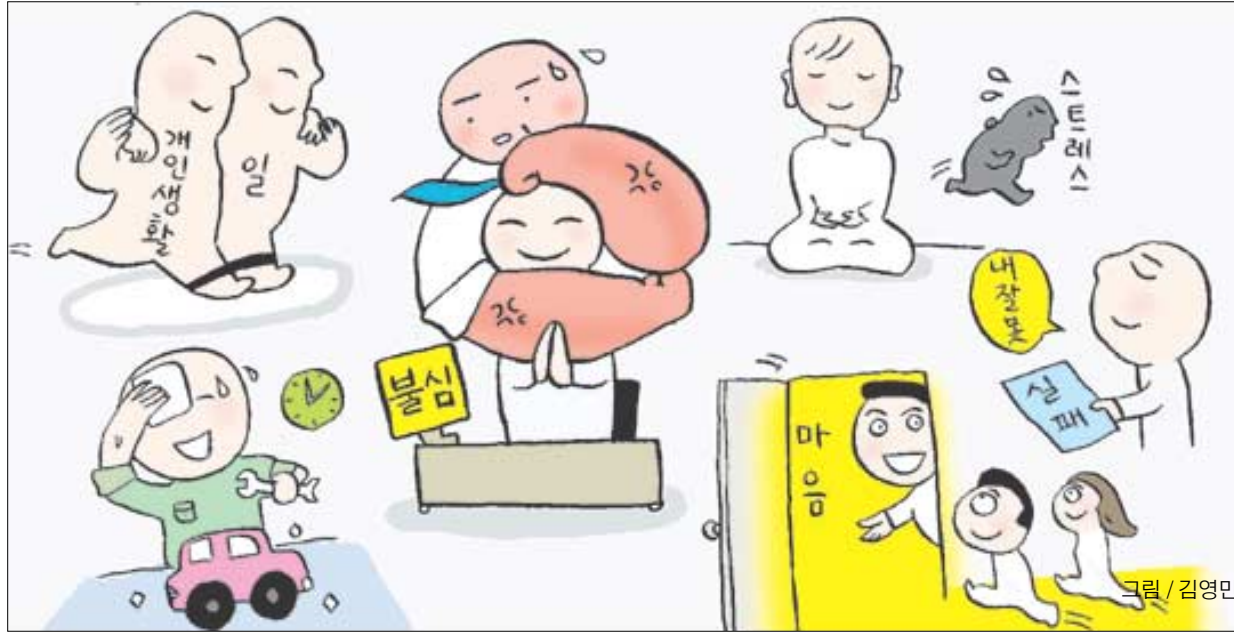


# 부처님이 '월급쟁이' 이라면? ■일터 불자들의 위기관리·인간관계 등 '노하우'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직장인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딜레마와 곤혹스러운 여러 문제들과 자주 만난다. 이럴때 부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지혜로운 인간관계 형성하기, 일터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 잡기. 일터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에 불자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조언해 주신 분들= 안홍부(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사무국장), 이숙표(동두천시청 삼보회 총무), 나경륜(순천시청 불자회 총무), 김진홍(대한민국경찰학교 사무국장), 심재장(서울시지하철공사 법우회 총무), 권혁은(경희의료원 불자회장), 임승중(국립의료원 법우회 총무), 장영호(MBC 불교연구소), 어오숙(선재마을의료회 간사), 윤현수(감정평가사 불자회 수석부회장), 우희종(서울대 교직원 불자모임 불이회 총무), 이만택(사법연수원 34기 다르마법우회장), 정진호(우리은행 서울불자회장), 박우락(서울 성북구사무소 법우회장(무순)).

# 이해·배려 그리고 최선... "즐거운 직장"

◆좋은 인간관계, 하심(下心)에 있다= '비판은 보물지도'라는 말이 <법구경>에 나온다. 험등과 깎간한 상사를 운동선수의 '코치'로 여겨야 한다는 말이다. 훌륭한 직원이 되고 싶으면, 엄격한 상사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불자모임 불이회 총무 우희종 교수는 "맑은 말을 낳는다. 묵빈 대처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다보면 흰 것은 흰대로, 검은 것은 검은 대로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가꿔야 할까? '열린 마음' 하심(下心)에 깊이 있었다. 나경륜 총무는 " '대화'를 통해 나 자신부터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했고, 사법연수원 34기 다르마법우회 이만택 회장은 "임기응변식 행동은 인간관계에서 독(毒)이다. 관계를 밝

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턱을 쌓는데 노력해야 한다"(심재장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 총무),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할 것과 인연법에 순응하라"(어오숙 선재마을의료회 간사)고 주문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점을 명심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다.

전남 순천시청 불자회 나경륜 총무는 "상사의 지시에, 능력이 못 돼 호방이 대신 고양이를 잡아줄지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동두천시청 삼보회 이숙표 총무도 "상사의 말이 아무리 불만족스럽다 해도 일단 순종한다. 그러는 가운데 일의 순서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된다"고 조언했다. 경희의료원 권혁은 회장은 "나름대로 경륜과 노하우를 가진 상사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자기 생각에 허접은 없는지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좋은 인간관계, 하심(下心)에 있다= '비판은 보물지도'라는 말이 <법구경>에 나온다. 험등과 깎간한 상사를 운동선수의 '코치'로 여겨야 한다는 말이다. 훌륭한 직원이 되고 싶으면, 엄격한 상사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장불자들은 스트레스와 변화에 대한 불안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단연 '수행'에서 찾고 있다. 국립의료원 법우회 임승중 총무는 '기도와 정진'을 꼽았다.

자처럼 일터와 가정에서 시간을 조율하는 불자가 돼야 한다"(김진홍 대한민국경찰학교 사무국장), "시간의 부림을 당하지 않고, 시간을 부릴 줄 알아야 한다"(권혁은 경희의료원 회장은 조언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직장에는 아무래도 '말' 때문에 겪는 고통이 크다. 누군가 당신을 이유 없이 헐뜯한다면? 국립의료원 법우회 임승중 총무는 "남이 자기를 나쁘게 말한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혹시 내게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불자의 자세"라며 "화가 나겠지만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된 나의 태도에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그 사람을 '선지식'으로 대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했다. MBC 불교연구소 장영호 회장은 " '무심(無心)'의 자세로 헐뜯을 들어도 듣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또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서울대 교

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안홍부 사무국장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원인은 바로 지나친 경쟁과 이기심"이라며 "남을 우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인간적 신뢰감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경륜 총무는 스트레스를 '마음의 병'으로 진단. 마음을 비우는 법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장영호 회장은 "스트레스는 욕망과 집착에서 생기는 만큼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의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불자들의 시간관리 비법도 공개됐다. '매사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이구동성이다. 감정평가사 불자회 윤현수 수석부회장은 "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했고, 정진호 우리은행 서울불자회장은 "매일매일 시간을 즐겁게 보람되게 쓰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직장생활이 이제 스님의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참되게 한다(隨處作主處皆真)'는 말씀을 일터에서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 우리불자회는요

### 서울 아산병원 법우회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는 불제자들입니다. 친목을 도모하고, 부처님의 감로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립은 지난 89년, 서울아산병원이 문을 열기 전에 했습니다. 당시 12명의 회원들이 모여 불

병실 방문·음악회 개최로 환자 아픔 나눠  
무의촌 무료진료봉사 신행의 최고 보람



서울 아산병원 법우회원들이 지난해 4월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불축법회에서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자회 첫 단을 올렸습니다. 초창기 때는 참으로 힘겨웠지요. 불교가 좋아 회원들이 많았지만, 불교에 대한 의문 덩어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신행생활이 계속 될수록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 그 때 우리 법우회는 서울 암사동 정향사 주지 지홍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면서 의문들이 조목조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법우회원들은 매주 한 차례 모여 법문도 들었습니다. 또 2002년에는 총 10회에 걸쳐 반야심경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매일 두 차례 열린 강좌에서는 흥성복전 동방불교대 교수가 강의를 맡아, 회원은 물론 환자, 보호자 등이 불법의 정수인 반야심경을 배웠습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불축법요식과 환자쾌유를 기원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홍 스님과 함께 짬이 날

# 2천만 불자 (주)AMS 주식 10주 갖기 운동

한국불교 태고종의 법인인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에서 금년 1월에 인수한 스마트카드 제조 및 송무사업 업체인 코스닥 등록기업 ㈜AMS(www.ams.co.kr / 회장 이운산 총무원장, 대표이사 부회장 지현진, 대표이사 사장 정호운)의 주식 10주 갖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태고원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AMS는 제16기 주주총회에서 전 임원진의 급여 20%를 가진 반납기로 결정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명실상부한 불교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 최대주주인 지병규氏의 주식을 순차적으로 당사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였으며 임직원의 '우리사주 100주 갖기 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대주주 중심의 회사 경영을 막고 소액주주 중심의 투명한 회사 경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액주주들을 하나의 큰 대주주 개념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를 주식 담당자로 정하여 직접 매주 두 차례 유선상의 공식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대표이사들의 E-mail을 공개하여 수시로 이메일과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소액주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내부의 투명경영 실천과 함께 한국불교 태고종 종단에서도 불교종단들과 협조하여 명실상부한 불교의 대표적 성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천만불자들에게 10주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남과 나를 함께 이롭게 한다'는 불교의 자리아타정신을 실물경제에 접목하여 불교이념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남과 나를 함께 이롭게 하는 불교 기업  
AMS  
www.ams.co.kr

- 1. 참여대상 : 전국 2천만 불교 신도
- 2. 참여방법 : 1) 코스닥시장 내 직접매입 2) AMS 유상증자 기간(3/29~31)내 청약 신청
- 3. 문 의 : 에이엠에스 업무지원팀 (02-780-2031)
- 4. 참 조 : 에이엠에스 홈페이지 (www.ams.co.kr)